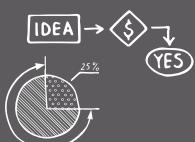




신한생각



KOSPI
2,111.81 (+0.59%)

KOSDAQ
728.79 (+1.06%)

KOSPI200선물
273.15 (+0.53%)

원/달러 환율
1,180.40 (-4.80원)

국고 3년 금리
1.542 (+0.9bp)

Top down

생각해 볼만한 차트

#536 ISA, 미래 소득을 공유하다 [곽현수]

Bottom up

이문종의 인터넷/게임 이야기

#19-81 드디어 시작된 클라우드 게임 [이문종]

아이디어 전망대

#19-11 공유경제의 확장-1) 소비재 렌탈 [김다미, 최유준]

기업 분석

LS산전 (010120/매수) [허민호]

하반기 이후 융합사업 적자 축소

휴온스 (243070/Not Rated) [배기달]

안정적인 성장 지속

포트폴리오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천보, SK하이닉스, 도이치모터스,
오이솔루션

6월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6월 ETF 포트폴리오: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ETF, VANGUARD REAL
ESTATE INDEX FUND ETF [신규]

★ 차트릴레이 - Top down / Bottom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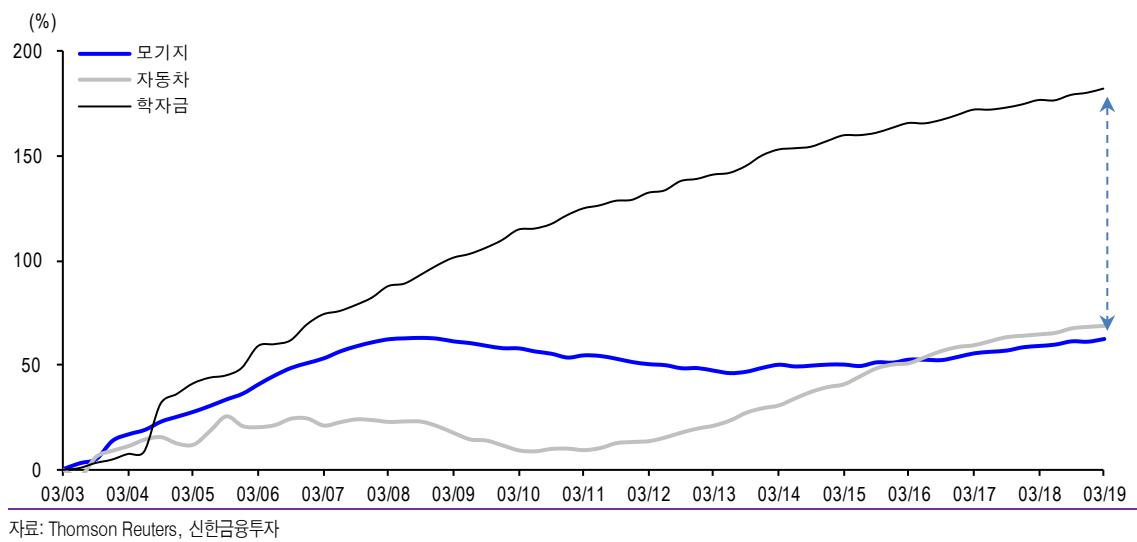
수요 Key Chart: 리스크, 경기소비재/금융

★ 증시지표



»»» Just 1 Minute!

미국 가계 대출 항목별 누적 증가율 추이 : 학자금 대출이 압도적



- 미국 가계 대출 내 학자금 대출 비율 급등. 2003년 3%에서 현재 10%
- 미국 내 대학들 새로운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인 ISA(소득공유협정) 도입 시작
- 월 가액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ISA에 주목. 밀레니얼 세대의 공유 열풍은 학자금 대출에서도 시작

Daily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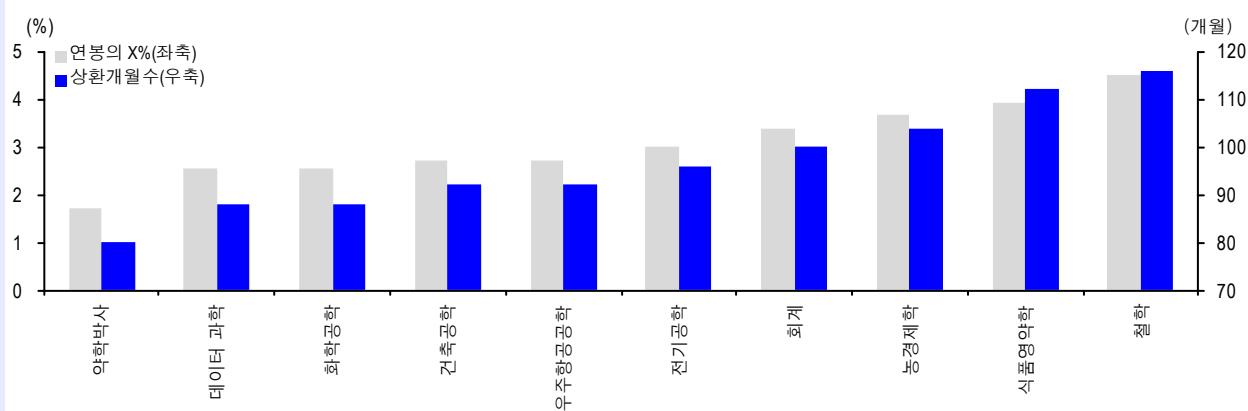
- | | |
|---------------|---|
| LS산전 (010120) | → ESS 안전 강화 및 지원 대책 발표, 하반기 국내 ESS 발주 재개 기대 |
| | → 2분기까지 실적 부진 불가피, 하반기 이후 융합사업 적자 축소 |
| | → 목표주가 60,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
| 휴온스 (243070) | → 의약품, 뷰티헬스케어 등 사업 다각화 장점 |
| | → 20년 영업이익 538억원(+15.2%, YoY) 전망 |
| | → 최근 주가 조정으로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 |

→ 신한 데일리(신한 생활)에 게재된 요약본의 원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신한아이, 골드윙 등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36 ISA, 미래 소득을 공유하다

투자전략팀장 곽현수 (02) 3772-2463 gwak81@shinhan.com

ISA 하 대출에 따른 학과별 연간 연봉 대비 상환 비율과 상환 개월 수(만 달러 대출 및 2020년 1월 졸업 가정)



자료: 퍼듀 대학(인디애나주 주립대학), 신한금융투자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말고 소득공유협정

미국 가계 대출은 금융위기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학자금 대출이 자동차 대출을 넘어섰다. 2003년 1분기 가계 대출에서 3.3%에 불과했던 학자금 대출 비중은 2019년 1분기 현재 10.9%로 늘었다. 금액은 1.49조달러로 자동차 대출 1.28조달러보다 크다. 전체 가계 대출이 로그 기준 64% 늘어났고 학자금 대출은 182% 늘어났다. 이 대출은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 뒷으로 이들은 미국에서 빚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첫 세대다.

늘어난 학자금 대출은 금융계에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했다. 그중 하나가 ISA(소득공유협정)라는 프로그램(아직은 학교 내 대출 시스템. 월가에서 차기 먹거리로 노리고 있는 분야)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과 구조가 다르다. 학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설정하는 금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다. 이자든 원금이든 따박따박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갚으면 된다. 문제는 대출을 받은 학생이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ISA는 다르다. 취업을 한 후 대출금을 상환한다. 상환 방식은 연봉의 X%를 정해진 기간 납부하는 형식이다. 예를 들면 3%씩 10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천만원 대출을 받는다고 하자. 입사에 성공해 첫해 연봉이 5천만원이고 매해 매해 천만원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10년 동안 납부하는 돈은 2,850만원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총 상환 금액은 원금의 2.5배를 넘지 못한다(퍼듀 대학 기준). 상환액은 2,500만원이 돼 9년 2개월만 내 연봉(월급) 3%를 떼주면 상환 완료다. 이 방식의 장점은 취업하지 않으면 빚 상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다. 취업을 못하는 학생에게 대출한 학교는 주식으로 따지면 상장 폐지 주식에 투자한 꼴이 된다.

학과마다 내야 하는 X%와 상환 기간은 다르다. 예상 평균 초봉이 다르기 때문이다. 퍼듀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학과별 대출 시 X%와 기간을 알 수 있다. 공대 계열이 문과 계열보다 예상 초봉이 높아 X와 기간 모두 대체로 낮다. 미래 내 첫 월급도 상품이 될지 모를 세상, 조금은 서글픈 마음도 들고 대학생 주머니까지 노리게 된 금융 회사의 현 실정도 안타깝다. 이런 상품(?)이 한국에도 연전가는 나오지 않을까 싶다. 여튼 밀레니얼은 정말 공유 세대다.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곽현수).

#19-11

공유경제의 확장-1) 소비재 렌탈



김다미

(02) 3772-1512

dm.kim@shinhan.com

최유준

(02) 3772-1964

junechoi1@shinhan.com

공유경제는 '소유' 개념의 약화와 제품수명주기(PLC) 축소로 부상

최근 몇 년 사이 '공유경제'가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개념이 주목 받게 된 요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1)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소유'보다 '사용' 개념이 부각되었다. 2) 또한 상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제품수명주기(PLC)가 짧아지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 제품을 체험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공유경제는 유형자산을 빌려 쓰는 렌탈산업에서 매월 일정 요금으로 콘텐츠 등의 무형자산을 이용하는 구독경제까지 확장되고 있다.

글로벌 유통 공룡들은 렌탈사업 확장 중, 국내 렌탈시장도 성장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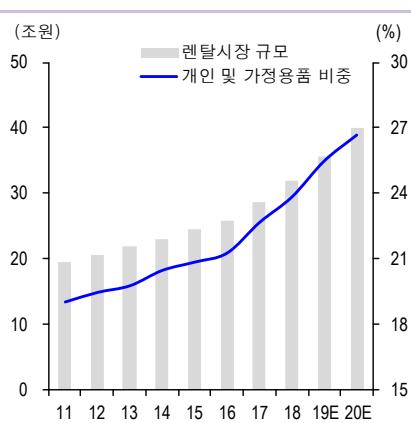
최근 글로벌 유통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렌탈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홈디포(HD:US)는 지난 5월 21일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렌탈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케아도 30개국 매장에서 가구 렌탈서비스 시범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소비재 기업들의 도전은 렌탈사업이 매력적인 비지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렌탈시장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15~20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10%, 전체 시장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p 상승을 예상했다.

국내 렌탈기업 영업이익 1Q19 YoY +25% 증가, 관련기업 탐색

생활가전 중심의 소비재 렌탈업체는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와 스타일러, 앤마의자, 매트리스 등 취급 상품의 확대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주요 상장기업(자회사 포함) 합산 매출액 YoY +16%, 영업이익은 +25% 증가했다. 특히 16년 인수된 SK매직, 17년 물적분할한 쿠쿠홈시스 등 최근 사업을 확장한 후발 기업의 고성장세가 두드러진다. SK매직이 2020년 상장을 앞두고 있어 렌탈기업의 성장성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렌탈시장 규모 및 소비재 비중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신한금융투자

주요 렌탈 기업 리스트

| 종목코드 | 종목명 | 시가총액 (십억원) | P/E (19년, 배) | 내용 |
|--------|---------|---------------|-----------------|-----------------------------------|
| 021240 | 웅진코웨이 | 6,000 | 15.56 | 소비재 렌탈 업계 1위 |
| 001740 | SK네트웍스 | 1,231 | 22.65 | 자회사(SK매직) 비중 매출액 4.6%, 영업이익 36.3% |
| 057050 | 현대홈쇼핑 | 1,099 | 7.63 | 자회사 비중(현대렌탈케어) 매출액 4.5% |
| 284740 | куку홈시스 | 1,165 | 19.46 |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법인 고성장 |
| 067170 | 오텍 | 205 | 8.35 | 자회사 오텍캐리어 19년 1월 렌탈사업 진출 |

자료: FnGuide, DART, 신한금융투자

주: 6월 11일 종가 기준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다미, 최유준).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천보(278280) KDQ

| | | |
|--------|--------|---|
| 주가 (원) | 84,200 | ▶ 2차전지 소재 부문 1) 높은 기술력, 2)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꾸준한 실적 성장 기대 |
| 추천일 | 6월 10일 | ▶ LiFSI, LiPO2F2, LiDFOP (단가 10만원/kg) 19년 추가 capa 증설 효과로 매출 성장 예상 |
| 수익률 | 0.0% | ▶ 19년 매출 1,600억원(+33%YoY), 영업이익 400억원(+48%YoY) 전망 |
| 상대수익 | -1.7%p | |

SK하이닉스(000660) KSP

| | | |
|--------|--------|--|
| 주가 (원) | 67,200 | ▶ 3Q19부터 반도체 출하량 증가 폭이 가격 하락 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 추천일 | 5월 29일 | ▶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도 CAPEX 조정을 통해 업황 훼손을 방어 가능 |
| 수익률 | 2.0% | ▶ 미국의 화웨이 제재 조치에 대한 수요 대체 효과 기대 |
| 상대수익 | -1.1%p | |

도이치모터스(067990) KDQ

| | | |
|--------|--------|--|
| 주가 (원) | 11,850 | ▶ BMW, MINI, Porsche를 국내에 판매하는 딜러사 |
| 추천일 | 5월 20일 | ▶ 1) 수익성 높은 A/S 부문 고성장, 2) 도이치오토월드 개장 효과 긍정적 |
| 수익률 | 55.9% | ▶ 2019년 매출액 1조 2,749억원(+20.5% YoY), 영업이익 986억원(+94.8% YoY)이 전망 |
| 상대수익 | 53.9%p | |

오이솔루션(138080) KDQ

| | | |
|--------|--------|--|
| 주가 (원) | 56,600 | ▶ 1분기 영업이익 97억원(흑전 YoY). 컨센서스 41억원 대폭 상회 |
| 추천일 | 5월 15일 | ▶ 2분기 매출액 전망 공시는 540억원. 5G向け 매출액은 404억원(+27.9% QoQ)이 예상 |
| 수익률 | 45.1% | ▶ 하반기에서 20년 북미, 일본 5G 투자가 본격화 되면 추정치 상향, 밸류 리레이팅이 동시에 기대 |
| 상대수익 | 42.5%p | |

[포트폴리오 관리] 위지윅스튜디오(수익률 16.2%, 상대수익 11.7%p)

- 상기 종목은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이며, 장기투자의견과 상이하거나, 투자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5% 이상 하락할 경우 Stop Loss 규정에 의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됩니다.
- 주가는 직접거래일 종가 기준이며, 일부 종목 정보는 FnGuide를 참고하였습니다.
- 주가(원)는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6월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마이크로소프트 (MSFT US)

| | 미국 |
|-----------|------------|
| 주가 (달러) | 132.6 |
| 추천일 | 19년 4월 26일 |
| 편입 이후 수익률 | 6.1% |
| 원화 환산 수익률 | 9.6% |

- ▶ 소프트웨어(Windows, Office) 브랜드 로열티를 통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까지 석권한 IT 업체
- ▶ 클라우드 산업 성장 최대 수혜 업체. Office의 구독 기반 서비스 변환으로 안정적인 이익 달성을 가능
- ▶ 19F P/E 27배. 캐쉬카우 제품군의 안정적인 이익과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성 감안 시 할증 가능

머크 (MRK US)

| | 미국 |
|-----------|-----------|
| 주가 (달러) | 82.5 |
| 추천일 | 19년 6월 4일 |
| 편입 이후 수익률 | 4.1% |
| 원화 환산 수익률 | 3.2% |

- ▶ 글로벌 매출 1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비롯해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보유한 Top 5 제약사
- ▶ 면역항암제 시장 고성장과 키트루다의 다수 적응증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 지속 전망
- ▶ 19F P/E 17배. 주가는 키트루다 적응증 확대 시마다 실적 추정치 상향으로 상승세 지속 전망

텐센트 (0700 HK)

| | 중국 |
|-----------|-----------|
| 주가 (홍콩달러) | 344.6 |
| 추천일 | 19년 6월 4일 |
| 편입 이후 수익률 | 5.7% |
| 원화 환산 수익률 | 4.9% |

- ▶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업체이자 세계 최대 게임 사업자
- ▶ 1) 정부 게임 판호 재개, 2) 온라인 광고와 신사업부(결제, 클라우드) 고성장이 실적 개선 주도
- ▶ 19F P/E 30배. 주가는 18년 말 수준까지 하락해 무역분쟁 영향 기반영 판단

북방화창 (002371 SZ)

| | 중국 |
|-----------|-----------|
| 주가 (위안) | 66.4 |
| 추천일 | 19년 6월 4일 |
| 편입 이후 수익률 | -0.5% |
| 원화 환산 수익률 | -1.5% |

- ▶ 정부가 대주주인 중국 대표 반도체 장비업체. 반도체 국산화 정책의 핵심 기업
- ▶ 중국 반도체 Capex 싸이클 2020년까지 유효. 증설 효과까지 더해져 연평균 40%대 이익 성장세 지속
- ▶ 19F P/E 77배. 로컬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중 유의미한 실적 발생 업체는 동사가 유일

창신신소재 (002812 SZ)

| | 중국 |
|-----------|-----------|
| 주가 (위안) | 55.3 |
| 추천일 | 19년 6월 4일 |
| 편입 이후 수익률 | 2.4% |
| 원화 환산 수익률 | 1.4% |

- ▶ 중국을 대표하는 2차전지 습식 분리막 제조 업체, 중국 내 점유율 50%로 압도적 1위
- ▶ 1) NCM 2차전지 수요 급증, 2) 습식 분리막 채택에 따른 실적 성장 지속 전망
- ▶ 19F P/E 31배. 습식 분리막 산업의 성장성과 독과점적 지위 감안 시 합리적 가격

홍기체인 (002697 SZ)

| | 중국 |
|-----------|-----------|
| 주가 (위안) | 6.2 |
| 추천일 | 19년 6월 4일 |
| 편입 이후 수익률 | 3.8% |
| 원화 환산 수익률 | 2.8% |

- ▶ 중국 중시 유일하게 상장된 편의점 업체. 점포수 기준 3위, 매출액 기준 1위(주유소 편의점 제외)
- ▶ 청두(成都)에서 2,250개 편의점 운영중이며 M/S 43.8%. 영휘마트와 제휴해 신선마트 사업에도 진출
- ▶ 19F P/E 22배로 최근 2년 밴드 하단. 로컬 소매/유통 업체 평균 30.2배대비 가격 매력 높은 구간

오리엔탈랜드 (4661 JP) 일본

| | |
|-----------|------------|
| 주가 (엔) | 13,570.0 |
| 추천일 | 19년 4월 30일 |
| 편입 이후 수익률 | 7.5% |
| 원화 환산 수익률 | 12.5% |

- ▶ 매년 3,000만명이 찾는 일본 도쿄 디즈니 리조트(디즈니랜드, 디즈니씨) 관리 및 운영 기업.
- ▶ 1) 입장권 가격 인상 기대, 2) 방일 관광객 증가로 입장객 및 호텔 이용 수요 확대, 3) 안정적 부대 수입
- ▶ FY20F P/E 53배. 관광객 증가와 대규모 투자가 2022년까지 주가 상승 지지 전망

팬퍼시픽 (7532 JP) 일본

| | |
|-----------|-----------|
| 주가 (엔) | 6,820.0 |
| 추천일 | 19년 6월 4일 |
| 편입 이후 수익률 | 1.5% |
| 원화 환산 수익률 | 1.6% |

- ▶ 일본 할인매장 체인. 대표 체인 '돈키호테'는 기존 유통업체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29년간 성장세
- ▶ 주요 이벤트(2019년 소비세 인상, 2020년 도쿄 올림픽) 수혜 예상, M&A와 해외 출점으로 외형 성장 지속
- ▶ FY19F P/E 22배로 업종 평균 수준. Peer 대비 성장 모멘텀 가진 동시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부여 타당

- 상기 종목은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이며, 장기투자 의견과 상이하거나, 투자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5% 이상 하락할 경우 Stop Loss 규정에 의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 종목 정보는 FnGuide, Bloomberg 및 WIND(중국, 홍콩) 컨센서스입니다.
- 주가(각국 통화 기준)는 각 시장의 전거래일 종가입니다. (단, 미국 및 유럽 주식은 10일 종가입니다.)

6월 ETF 포트폴리오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ETF (NOBL.US) 미국

| | |
|---------|------------|
| 주가 (달러) | 68.8 |
| 추천일 | 19년 6월 12일 |

- ▶ S&P 500 Dividend Aristocrats 지수에 편입된 기업을 동일가중 방식으로 투자
- ▶ S&P 500 종목 중 적어도 25년 동안 매년 연속으로 배당지급 증가한 기업 편입
- ▶ 시장 대비 높은 배당수익률 + 배당성장 주식 투자

신규 편입

VANGUARD REAL ESTATE INDEX FUND ETF (VNQ.US) 리츠

| | |
|---------|------------|
| 주가 (달러) | 88.7 |
| 추천일 | 19년 6월 12일 |

- ▶ 미국 내 부동산 소유 및 운영과 관련된 회사를 투자하는 ETF
- ▶ 부동산 투자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수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
- ▶ 배당수익률이 3~4%대로 높고 분기마다 배당 지급

신규 편입

SPDR Gold Trust (GLD.US) 골드

| | |
|-----------|-----------|
| 주가 (달러) | 125.3 |
| 추천일 | 19년 6월 3일 |
| 편입 이후 수익률 | 0.2% |
| 원화 환산 수익률 | 0.6% |

- ▶ 런던 금고에 보관 된 금괴에 투자하여 금 현물 가격 추적
- ▶ 금 현물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달러표시 자산으로 투자 할 수 있는 ETF
- ▶ 금 현물 직접 투자 시 발생하는 비용과 장소를 고려하면 비용이 저렴한 편

VANECK VECTORS VIETNAM

ETF (VNM.US) 베트남

| | |
|-----------|-----------|
| 주가 (달러) | 16.3 |
| 추천일 | 19년 3월 5일 |
| 편입 이후 수익률 | -2.6% |
| 원화 환산 수익률 | 2.7% |

- ▶ MVIS VIETNAM 지수에 편입된 기업 시가총액 가중방식 투자
- ▶ 베트남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약 70% 커버
- ▶ MSCI 베트남 지수보다 더 많은 종목을 편입하여 실제 베트남 시장을 잘 반영한 ETF

Xtrackers Harvest CSI 300 China A-Shares ETF (ASHR.US) 중국

| | |
|-----------|------------|
| 주가 (달러) | 26.3 |
| 추천일 | 19년 1월 22일 |
| 편입 이후 수익률 | 14.0% |
| 원화 환산 수익률 | 19.6% |

- ▶ CSI300 지수에 편입된 기업 시가총액 가중방식 투자
- ▶ 상해 및 심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높은 300개 기업 편입
- ▶ 중국 본토기업 A주에 중점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판매]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TLT) (수익률 4.7%, 원화 환산 수익률 5.3%)

- 상기 종목은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이며, 장기 투자 의견과 상이하거나, 투자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편입 이후 주가가 15% 이상 하락할 경우 Stop Loss 규정에 의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 종목 정보는 각 ETF 운용사 홈페이지 및 Bloomberg 등 정보를 인용하였습니다.
- 주가(각국 통화 기준)는 각 시장의 전거래일 종기입니다. (단, 해외 상장 ETF의 주가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전전 거래일의 종기입니다.)
- 수익률은 추천일의 종가 대비 전거래일 종기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해외 상장 ETF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추천일의 종가 대비 전전거래일 종기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입니다.

#19-81 드디어 시작된 클라우드 게임



Analyst >>>

이문종

(02) 3772-1586

mj1224@shinhan.com

주요 글로벌 기업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 공개

6월 7일(이하 한국 기준) 구글의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인 '스태디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일정이 공개되었다. 11월 정식 출시 예정이며 사용자들은 월 9.99달러(무료 게임 및 할인 서비스 제공, 전용 컨트롤러 69달러 별매)에 고사양 컴퓨터 없이 서버에 접속해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マイクロ소프트도 10일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xCloud'를 공개했다. 10월 프리뷰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이머는 보유한 Xbox 게임을 장소에 구애 없이 PC,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플레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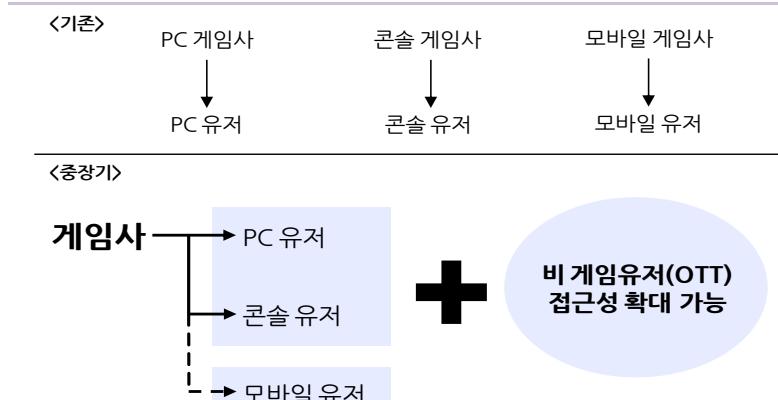
클라우드 게임 통한 유저풀 확대 긍정적이나 당장의 보편화는 무리

클라우드 게임이 본격화될 경우 게임사들은 그동안 하드웨어 한계로 제한되었던 유저풀을 확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사양 게임 기기를 보유한 유저만이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클라우드 게임을 통해 저사양 PC 혹은 모바일 기기를 보유한 유저까지도 고퀄리티 게임의 고객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인풋렉(입력 지연) 최소화 등의 기술적 문제 및 게임 타이틀 확보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보편화 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국내 게임사 중 고퀄리티 게임 제공 가능업체에 유리

국내 게임사의 경우 패키지 게임보다는 부분 유료화 방식의 온라인/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개발하는 만큼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겠다. 다만 클라우드 게임이 보편화된다면 국내 게임사들 역시 클라우드 게임에 적합한 게임 개발을 진행할 것이며 이 경우 PC/콘솔 대작 게임 개발이 가능한 엔씨소프트(036570), 펠어비스(263750) 등 대형사 위주의 수혜가 예상된다.

클라우드 게임 성장에 따른 게임 시장 변화



자료: 신한금융투자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문종)..

LS 산전 (010120)

하반기 이후 융합사업 적자 축소

매수 (유지)

| | |
|---------------|---------------|
| 현재주가 (6월 11일) | 48,700 원 |
| 목표주가 | 60,000 원 (유지) |
| 상승여력 | 23.2% |

허민호
(02) 3772-2183
hiroo79@shinhan.com

이진명
(02) 3772-1534
jinmyung.lee93@shinhan.com

| | |
|---------------|---|
| KOSPI | 2,111.81p |
| KOSDAQ | 728.79p |
| 시가총액 | 1,461.0십억원 |
| 액면가 | 5,000 원 |
| 발행주식수 | 30.0 백만주 |
| 유동주식수 | 15.5 백만주(51.8%) |
| 52 주 최고가/최저가 | 79,400 원/44,400 원 |
| 일평균 거래량 (60일) | 84,099 주 |
| 일평균 거래액 (60일) | 4,045 백만원 |
| 외국인 지분율 | 15.94% |
| 주요주주 | LS 46.00% 국민연금 11.32% |
| 절대수익률 | 3 개월 0.8% 6 개월 -2.8% 12 개월 -37.6% |
| KOSPI 대비 | 3 개월 2.1% |
| 상대수익률 | 6 개월 -5.5% 12 개월 -27.0% |

ESS 안전 강화 및 지원 대책 발표, 하반기 국내 ESS 발주 재개 기대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 원인은 1) 배터리 보호시스템, 2) 운영환경 관리, 3)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4) 설치 부주의 등이다. 관련 제조, 설치, 운영/관리, 소방 기준 등 전분야에 걸쳐 안전제도가 강화된다. 설비 제조 및 설치업체의 비용 및 인지도의 중요성 증가가 예상된다. 전력설비/공사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대형 업체의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 LS산전 등은 이미 새로운 안전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조 및 설치를 하고 있다. 추가적인 비용 증가는 크지 않다.

정부는 지원책으로 산업용 피크부하 감소 ESS 요금 특례기간 이월, 2020년 6월까지 설치 완료 ESS의 REC 가중치 5배 부여(기존 2019년 말까지 5배, 2020년 1월부터 4배) 등을 발표했다. 태양광 구축 기간 평균 1년, ESS 구축 기간은 평균 6개월을 감안하면 올해말까지 대규모 ESS 발주 증가가 기대된다.

2분기까지 실적 부진 불가피, 하반기 이후 융합사업 적자 축소

LS산전은 영암 태양광 발전소 93MW, ESS 242MWh(PCS 78MW) 설치공사 1,848억원을 수주했다. 하반기 일본 및 국내에서 총 1,000억원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2019년 ESS 1,500억원(영암 태양광 발전 관련 ESS 포함) 수주가 예상된다. 2H19 ~ 2020년 융합사업(태양광, ESS, 전기차 부품 등)의 적자 축소가 기대된다. 2분기 영업이익은 409억원(-37% YoY)이 예상된다. 융합사업 적자 확대, 전력인프라 부진 지속 등이 주요인이다.

목표주가 60,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하반기 전력기기/자동화 회복, 융합사업 적자 축소 등으로 실적 안정화가 전망된다. IT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전력인프라 실적 부진, 2020년 7월 이후 REC 4배로 축소에 따른 국내 ESS 수요 감소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직류기기 매출 성장, 해외 ESS 진출 등 대안 마련 성공시 벨류에이션 회복이 가능하다.

| 12월 결산 | 매출액 (십억원) | 영업이익 (십억원) | 세전이익 (십억원) | 순이익 (십억원) | EPS (원) | 증가율 (%) | BPS (원) | PER (배) | EV/EBITDA (배) | PBR (배) | ROE (%) | 순차입금비율 (%) |
|--------|--------------|---------------|---------------|--------------|------------|------------|------------|------------|------------------|------------|------------|---------------|
| 2017 | 2,343.7 | 158.4 | 138.5 | 105.1 | 3,503 | 30.2 | 38,191 | 18.6 | 8.9 | 1.7 | 9.5 | 20.9 |
| 2018 | 2,485.0 | 205.0 | 177.8 | 131.6 | 4,385 | 25.2 | 43,150 | 11.2 | 5.6 | 1.1 | 10.8 | 11.6 |
| 2019F | 2,293.6 | 163.8 | 152.5 | 108.4 | 3,614 | (17.6) | 45,689 | 13.5 | 6.5 | 1.1 | 8.1 | 11.2 |
| 2020F | 2,539.8 | 195.2 | 174.7 | 124.3 | 4,144 | 14.7 | 48,611 | 11.8 | 5.6 | 1.0 | 8.8 | 7.6 |
| 2021F | 2,582.2 | 206.0 | 185.9 | 132.3 | 4,410 | 6.4 | 51,701 | 11.1 | 5.2 | 0.9 | 8.8 | 2.8 |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LS산전의 2019년 2분기 실적 프리뷰

| (십억원, %) | 2Q19F | 2Q18 | YoY | 1Q19 | QoQ | 컨센서스 |
|----------|-------|-------|--------|-------|-------|-------|
| 매출액 | 555.0 | 660.5 | (16.0) | 518.5 | 7.0 | 595.0 |
| 영업이익 | 40.9 | 65.3 | (37.3) | 28.7 | 42.6 | 47.0 |
| 세전이익 | 36.0 | 56.6 | (36.4) | 35.6 | 1.1 | 41.9 |
| 순이익 | 25.4 | 39.7 | (36.1) | 26.4 | (3.9) | 32.2 |
| 영업이익률 | 7.4 | 9.9 | - | 5.5 | - | 7.9 |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LS산전의 수익 추정 변경

| (십억원, %) | 변경전 | | 변경후 | | 변경률 | |
|----------|---------|---------|---------|---------|-------|-------|
| | 2019F | 2020F | 2019F | 2020F | 2019F | 2020F |
| 매출액 | 2,283.1 | 2,446.9 | 2,293.6 | 2,539.8 | 0.5 | 3.8 |
| 영업이익 | 166.4 | 209.4 | 163.8 | 195.2 | (1.6) | (6.8) |
| 세전이익 | 157.5 | 190.8 | 152.5 | 174.7 | (3.2) | (8.4) |
| 순이익 | 112.0 | 135.7 | 108.4 | 124.3 | (3.2) | (8.4) |
| 영업이익률 | 7.3 | 8.6 | 7.1 | 7.7 | - | - |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LS산전의 실적 추이 및 전망

| (십억원, %) | 1Q18 | 2Q18 | 3Q18 | 4Q18 | 1Q19 | 2Q19F | 3Q19F | 4Q19F | 2016 | 2017 | 2018 | 2019F | 2020F | 2021F | 2022F |
|----------|--------|-------|-------|--------|--------|--------|-------|-------|---------|---------|---------|---------|---------|---------|---------|
| 매출액 | 591.6 | 660.5 | 602.5 | 630.4 | 518.5 | 555.0 | 591.0 | 629.2 | 2,213.6 | 2,343.7 | 2,485.0 | 2,293.6 | 2,539.8 | 2,582.2 | 2,695.0 |
| 전력기기 | 163.1 | 163.3 | 155.6 | 151.8 | 161.1 | 165.1 | 155.3 | 150.5 | 634.1 | 665.3 | 633.8 | 632.0 | 645.2 | 655.7 | 668.7 |
| 전력인프라 | 163.5 | 158.7 | 129.7 | 197.9 | 119.5 | 131.7 | 129.3 | 146.3 | 526.1 | 621.1 | 649.8 | 526.7 | 552.9 | 588.0 | 604.8 |
| 자동화 | 80.0 | 77.9 | 68.6 | 66.9 | 64.7 | 64.9 | 73.0 | 69.3 | 274.1 | 287.1 | 293.4 | 271.9 | 282.2 | 291.3 | 301.4 |
| 융합 | 48.1 | 117.0 | 91.1 | 71.9 | 40.3 | 47.0 | 73.0 | 109.5 | 278.0 | 233.9 | 328.2 | 269.8 | 468.8 | 429.8 | 479.7 |
| 국내외 자회사 | 144.8 | 182.3 | 156.1 | 152.3 | 147.4 | 158.5 | 159.1 | 158.9 | 519.1 | 564.8 | 635.5 | 623.8 | 633.4 | 659.5 | 684.4 |
| 영업이익 | 55.4 | 65.3 | 52.6 | 31.7 | 28.7 | 40.9 | 49.8 | 44.4 | 124.4 | 158.4 | 205.0 | 163.8 | 195.2 | 206.0 | 225.7 |
| 전력기기 | 33.6 | 32.0 | 29.8 | 25.4 | 31.3 | 33.8 | 33.6 | 27.6 | 141.9 | 138.6 | 120.8 | 126.4 | 128.1 | 131.1 | 134.4 |
| 전력인프라 | 13.6 | 10.4 | 4.0 | 16.9 | 0.6 | 1.7 | 2.6 | 2.1 | (4.4) | 28.6 | 44.9 | 7.0 | 8.8 | 13.0 | 14.3 |
| 자동화 | 11.1 | 11.6 | 9.0 | 8.7 | 4.9 | 6.9 | 9.3 | 9.3 | 26.8 | 35.6 | 40.4 | 30.4 | 31.9 | 33.2 | 35.3 |
| 융합 | (8.0) | 1.5 | (3.5) | (21.2) | (8.5) | (7.2) | (5.4) | (2.4) | (66.9) | (59.8) | (31.3) | (23.5) | (0.2) | 1.2 | 12.0 |
| 국내외 자회사 | 2.8 | 11.7 | 9.6 | (1.1) | 2.7 | 4.1 | 7.0 | 5.6 | 17.7 | 12.8 | 23.0 | 19.3 | 19.8 | 20.5 | 22.3 |
| 금융손익 | (2.4) | (1.7) | (2.0) | 1.1 | 7.6 | (2.4) | (2.3) | (2.2) | (17.1) | (12.3) | (5.0) | 0.7 | (8.8) | (8.1) | (6.0) |
| 기타 영업외손익 | (0.2) | (6.9) | (5.3) | (9.8) | (0.7) | (2.5) | (4.8) | (4.0) | (5.6) | (7.9) | (22.3) | (12.0) | (11.7) | (12.0) | (12.0) |
| 지분법이익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2 | 0.2 | 0.0 | 0.0 | 0.0 | 0.0 | 0.0 |
| 세전이익 | 52.8 | 56.6 | 45.3 | 23.0 | 35.6 | 36.0 | 42.6 | 38.2 | 102.0 | 138.5 | 177.8 | 152.5 | 174.7 | 185.9 | 207.7 |
| 순이익 | 42.5 | 39.7 | 34.9 | 14.5 | 26.4 | 25.4 | 32.8 | 23.8 | 80.7 | 105.1 | 131.6 | 108.4 | 124.3 | 132.3 | 147.6 |
| 영업이익률 | 9.4 | 9.9 | 8.7 | 5.0 | 5.5 | 7.4 | 8.4 | 7.1 | 5.6 | 6.8 | 8.3 | 7.1 | 7.7 | 8.0 | 8.4 |
| 전력기기 | 20.6 | 19.6 | 19.2 | 16.7 | 19.4 | 20.5 | 21.7 | 18.4 | 22.4 | 20.8 | 19.1 | 20.0 | 19.9 | 20.0 | 20.1 |
| 전력인프라 | 8.3 | 6.6 | 3.1 | 8.5 | 0.5 | 1.3 | 2.0 | 1.4 | (0.8) | 4.6 | 6.9 | 1.3 | 1.6 | 2.2 | 2.4 |
| 자동화 | 13.9 | 14.9 | 13.1 | 13.0 | 7.6 | 10.6 | 12.7 | 13.4 | 9.8 | 12.4 | 13.8 | 11.2 | 11.3 | 11.4 | 11.7 |
| 융합 | (16.7) | 1.3 | (3.8) | (29.5) | (21.1) | (15.3) | (7.4) | (2.2) | (24.0) | (25.6) | (9.5) | (8.7) | (0.0) | 0.3 | 2.5 |
| 국내외 자회사 | 2.0 | 6.4 | 6.1 | (0.7) | 1.8 | 2.6 | 4.4 | 3.5 | 3.4 | 2.3 | 3.6 | 3.1 | 3.1 | 3.1 | 3.3 |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허민호, 이진명).
동 자료는 2019년 6월 12일에 공표할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휴온스 (243070)

안정적인 성장 지속

Not Rated

| | |
|---------------|----------|
| 현재주가 (6월 11일) | 58,000 원 |
| 목표주가 | - |
| 상승여력 | - |

배기달

(02) 3772-1554
kdbae@shinhan.com

의약품, 뷰티헬스케어 등 사업 다각화 장점

16년 5월 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신설되었다. 올해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의약품(56%), 뷰티헬스케어(23%), 수탁(13%) 등 사업 다각화를 이루었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원외처방 조제 액 기준으로 2014년 41위에서 2016년 30위, 작년 25위로 국내 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16년부터 보툴리눔 제제인 '휴톡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는 내수 시장에서도 '리즈톡스'를 출시한다. 작년 중국 영향으로 부진한 보툴리눔 제제 매출은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되겠다. 내년 매출액은 175억원(+44.6%, 이하 YoY), 21년에는 210억원(+20.0%)으로 예상된다.

20년 영업이익 538억원(+15.2%, YoY) 전망

올해 매출액은 3,538억원(+7.7%), 영업이익은 467억원(+3.1%)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필러와 기타 에스테틱 사업 부문(작년 매출액 약 200억원)을 계열회사로 이관하였기에 올해 표면적인 성장은 크지 않겠다. 20년 매출액은 3,914억 원(+10.6%)으로 다시 10% 성장을 이어가겠다. 영업이익 538억원(+15.2%), 영업이익률 13.7%(+0.5%p)로 수익성도 좋아지겠다.

최근 주가 조정으로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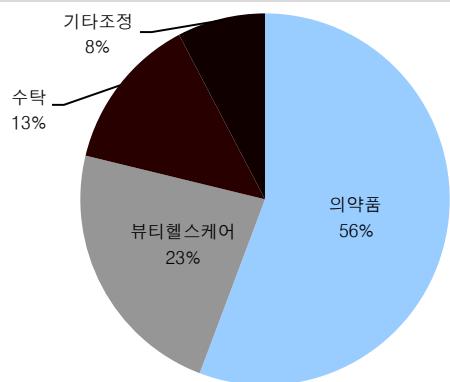
올해 주가는 약 20% 하락하였다. 메디톡스 등 보툴리눔 전문 업체의 주가가 부진하였으며 에스테틱 사업 이관으로 올해 성장성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PER(주가수익비율)은 14.1배로 중견 업체의 평균 PER(14.4 배)과 비교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 '리즈톡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내수 시장에 안착하면 실적도 주가도 좋아질 수 있다.

| | |
|---------------|-------------------|
| KOSPI | 2,111.81p |
| KOSDAQ | 728.79p |
| 시가총액 | 521.1십억원 |
| 액면가 | 500 원 |
| 발행주식수 | 9.0 백만주 |
| 유동주식수 | 4.9 백만주(54.9%) |
| 52 주 최고가/최저가 | 97,356 원/54,600 원 |
| 일평균 거래량 (60일) | 34,474 주 |
| 일평균 거래액 (60일) | 2,190 백만원 |
| 외국인 지분율 | 14.34% |
| 주요주주 | 휴온스글로벌 외 6 인 |
| 절대수익률 | 45.02% |
| 3 개월 | -20.4% |
| 6 개월 | -13.4% |
| 12 개월 | -33.6% |
| KOSDAQ 대비 | -17.6% |
| 상대수익률 | -16.7% |
| 12 개월 | -19.5% |

| 12월 결산 | 매출액 (십억원) | 영업이익 (십억원) | 세전이익 (십억원) | 순이익 (십억원) | EPS (원) | 증가율 (%) | BPS (원) | PER (배) | EV/EBITDA (배) | PBR (배) | ROE (%) | 순차입금비율 (%) |
|--------|--------------|---------------|---------------|--------------|------------|------------|------------|------------|------------------|------------|------------|---------------|
| 2017 | 284.8 | 36.2 | 44.8 | 35.1 | 3,904 | 51.8 | 13,657 | 17.4 | 13.2 | 5.0 | 32.4 | (6.9) |
| 2018 | 328.6 | 45.3 | 56.0 | 45.2 | 5,035 | 29.0 | 18,174 | 14.2 | 11.2 | 3.9 | 31.6 | (5.0) |
| 2019F | 353.8 | 46.7 | 46.1 | 36.9 | 4,111 | (18.4) | 21,531 | 14.1 | 9.3 | 2.7 | 20.7 | (12.8) |
| 2020F | 391.4 | 53.8 | 53.1 | 42.5 | 4,736 | 15.2 | 25,417 | 12.2 | 7.9 | 2.3 | 20.2 | (18.1) |
| 2021F | 428.0 | 59.5 | 58.9 | 47.2 | 5,252 | 10.9 | 29,771 | 11.0 | 6.9 | 1.9 | 19.0 | (2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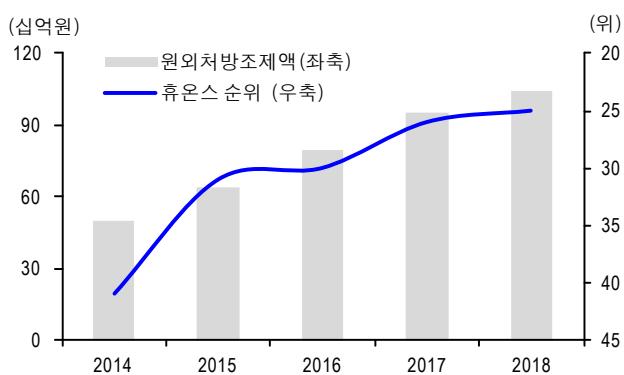
자료: 회사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휴온스 부문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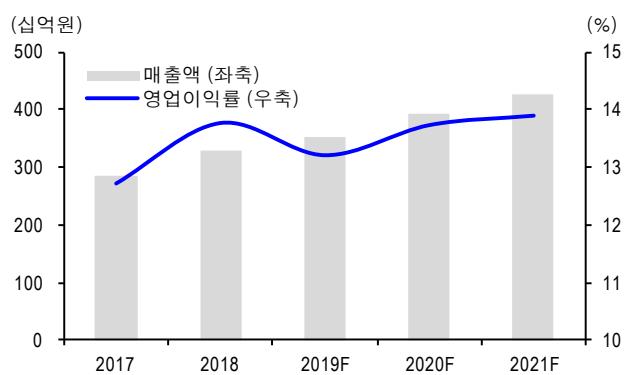
자료: 휴온스, 신한금융투자 추정

휴온스 원외처방 조제액 및 순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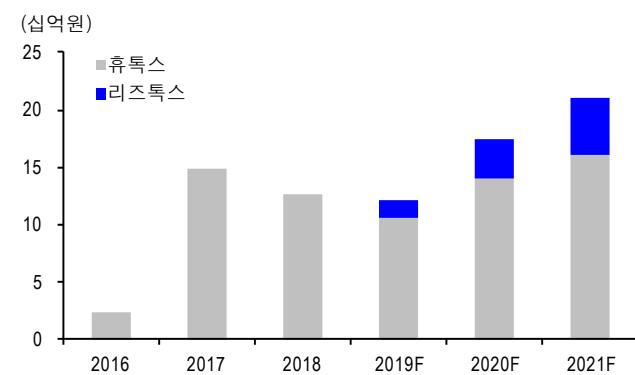
자료: UBIST, 신한금융투자

휴온스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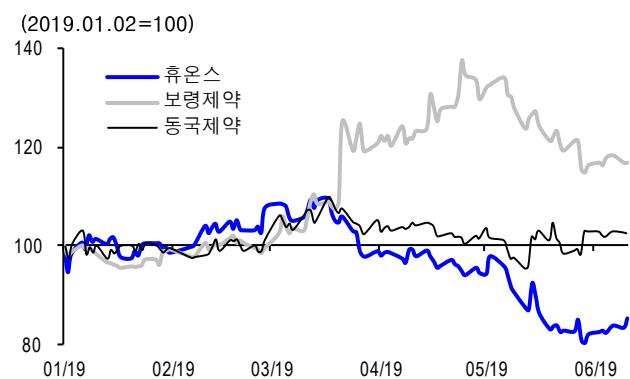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휴톡스+리즈톡스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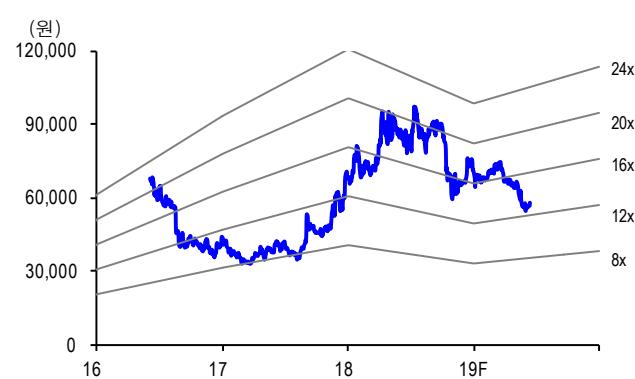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추정

중소 제약사 상대주가 추이



자료: QuantWise, 신한금융투자

휴온스 12M Fwd PER Band



자료: QuantWise, 신한금융투자 추정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배기달).
동 자료는 2019년 6월 12일에 공표할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월: 수급

화: 경제

수: 리스크

목: 밸류에이션

금: 금리/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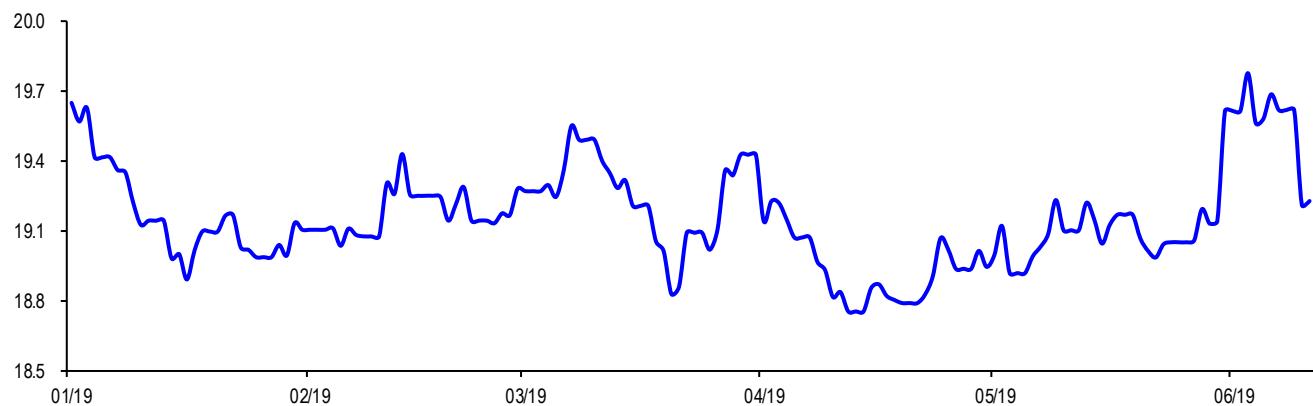
✓ 미국, 멕시코 불법 이민대책 강화 합의에 관세 부과 무기한 연기

미국, 멕시코 불법 이민대책 강화 합의에 관세 부과 무기한 연기, 멕시코 군인 6,000명 과테말라 국경에 배치 예정

→ 미국, 8일(현지시간) 멕시코의 불법 이민대책 강화에 따라 관세 부과 무기한 연기 발표. 멕시코는 국경 보안 강화 위해 남부 과테말라 국경에 자국 군인 6,000명 새로 배치 예정. 관세 우려 해소에 폐소/달러 환율은 최근 급등 이전 수준 회복. 미국-멕시코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예상돼 해당 이슈 전개에 주목

2019년 이후 폐소/달러 환율 추이

(폐소/달러)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 차트 릴레이 ❖

✓ CITI Macro Risk Index 0.55 (6월 7일 기준)

위험지수 전주대비 0.07p 하락

→ 미국-멕시코 관세 우려 해소에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축소되며 위험선호 심리 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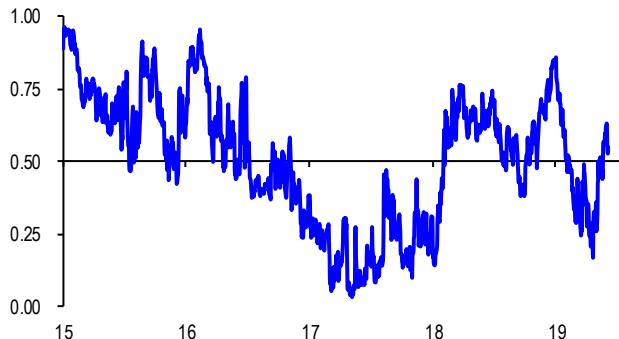
✓ 유가 변동성 지수 전주 대비 하락

6월 7일 기준 38.8로 전주대비 8.2p 하락

→ 국제 유가는 OPEC 감산 합의국들의 감산 기간 연장 전망에 상승하며 변동성 축소

2015년 이후 CITI Macro Risk Ind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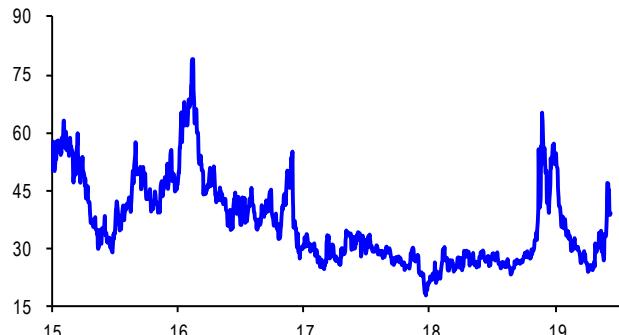
(기준=0.5)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2015년 이후 유가 변동성 지수 추이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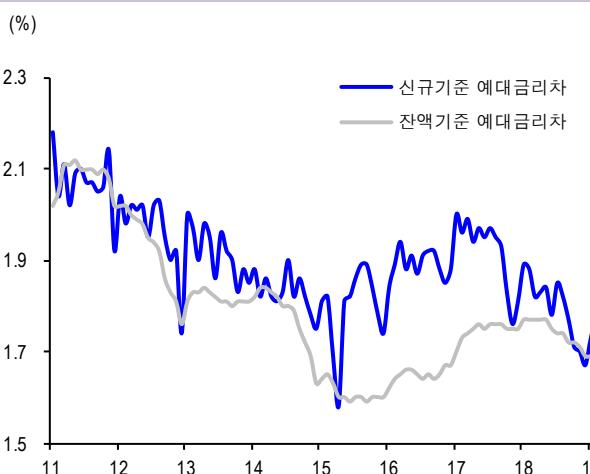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월: IT
통신서비스화: 소재
산업재수: 경기소비재
금융목: 필수소비재
헬스케어금: 에너지
유트리티

✓ 4월 신규 예대금리차 1.77%(+6bp MoM) 기록

신규기준 저축성 수신금리 1.88%(-7bp MoM),
 대출금리 3.65%(-1bp MoM)
 → 잔액기준 총 수신 금리 2.04%(-1bp MoM)
 총 대출금리 3.72%(-2bp MoM)

신규 및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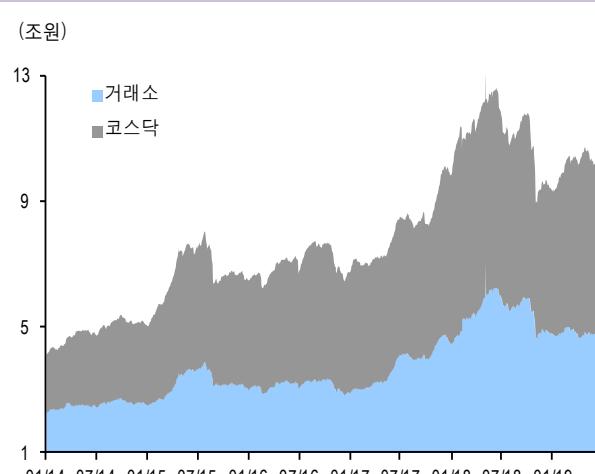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신한금융투자

✓ 5월 신용공여 잔고 10.2조원(-18.0% YoY) 기록

유기증권 시장 4.8조원(-22.1% YoY), 코스닥 시장 5.4조원(14.0% YoY)
 → 고객예탁금 24.3조원(-15.8% YoY), MMF 106.8
조원(-8.9% YoY)

증시 신용공여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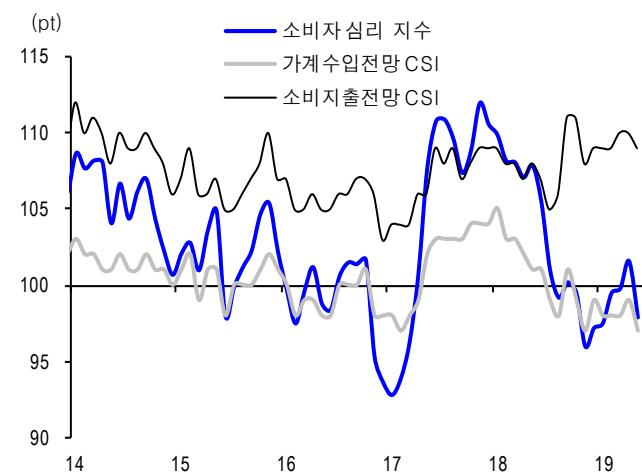


자료: KRX, 신한금융투자

✓ 5월 소비자심리지수 97.9pt 기록

전월 대비: -3.7pt, 전년 동월 대비: -10.0pt
 → 가계수입전망 CSI는 97pt(-2pt MoM)
 소비지출전망 CSI는 109pt(-1pt MoM)

소비자심리지수, 가계수입전망 CSI, 소비지출전망 C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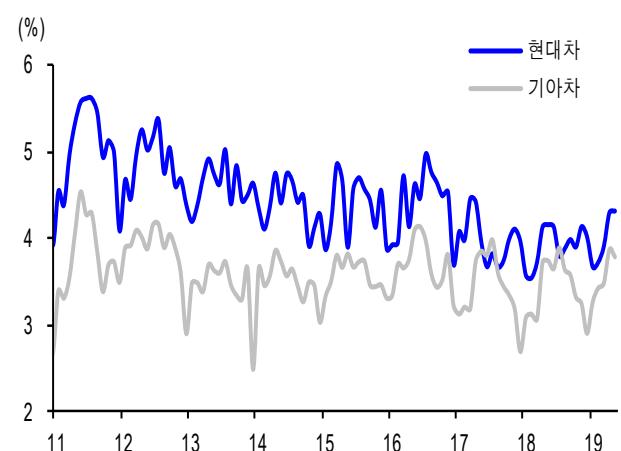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신한금융투자

✓ 5월 美 신차 판매 159만대(-0.2% YoY) 기록

현대차 6.8만대(+3.6%), 기아차 6만대(+1%) 기록
 → 투싼/싼타페/코나의 흥행으로 SUV 성장 지속
 → 소울/텔루라이드의 선전으로 K시리즈 부진 만회

현대/기아차 미국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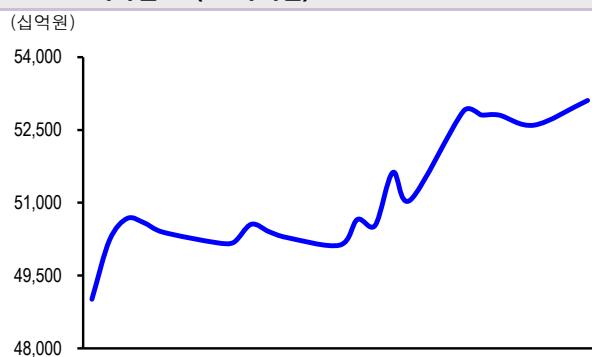


자료: ACEA,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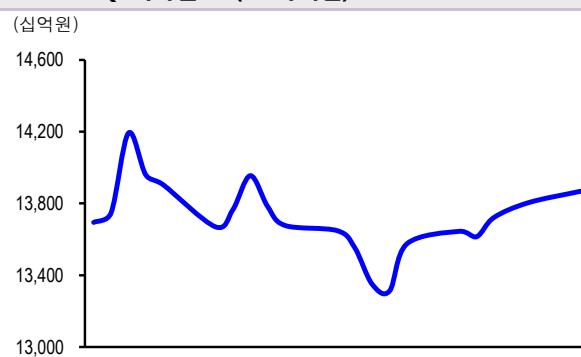
대차잔고 증감 (단위: 십억원)

| | 2018년 말 | 6/3(월) | 6/4(화) | 6/5(수) | 6/7(금) | 6/10(월) |
|-----|---------|--------|--------|--------|--------|---------|
| 코스피 | 44,734 | 52,893 | 52,808 | 52,806 | 52,600 | 53,108 |
| 코스닥 | 13,157 | 13,644 | 13,614 | 13,721 | 13,805 | 13,868 |

KOSPI 대차잔고 (20거래일)



KOSDAQ 대차잔고 (20거래일)



대차거래 상위 종목 KOSPI (단위: 주/백만원)

기준일 : 2019년 6월 10일

| 수량 | | | | 금액 | | | |
|---------------|---------|-------------|--------------|---------------|--------|-----------|--------------|
| 종목 | 증가 | 총잔고 | 차입 주체 | 종목 | 증가 | 총잔액 | 차입 주체 |
| KODEX 코스닥 150 | 999,945 | 2,414,948 | 기관100% | 삼성전자 | 43,888 | 6,036,508 | 외국인31%/기관69% |
| 삼성전자 | 979,637 | 134,743,483 | 외국인31%/기관69% | SK하이닉스 | 24,387 | 1,926,759 | 외국인83%/기관17% |
| KT | 623,747 | 11,574,460 | 기관100% | 삼성전기 | 20,587 | 2,437,218 | 외국인64%/기관36% |
| 쌍용양회 | 451,325 | 14,938,190 | 외국인6%/기관94% | KT | 17,496 | 324,663 | 기관100% |
| SK하이닉스 | 365,069 | 28,843,710 | 외국인83%/기관17% | KODEX 코스닥 150 | 11,049 | 26,685 | 기관100% |
| TIGER 코스닥150 | 240,000 | 6,763,980 | 기관100% | 엔씨소프트 | 10,752 | 693,255 | 외국인75%/기관25% |
| 삼성전기 | 215,567 | 25,520,609 | 외국인64%/기관36% | 기아차 | 7,741 | 526,064 | 외국인72%/기관28% |
| DB | 206,608 | 2,444,986 | 기관100% | POSCO | 6,999 | 718,946 | 기관100% |

대차거래 상위 종목 KOSDAQ (단위: 주/백만원)

기준일 : 2019년 6월 10일

| 수량 | | | | 금액 | | | |
|---------|---------|------------|--------------|---------|-------|-----------|--------------|
| 종목 | 증가 | 총잔고 | 차입 주체 | 종목 | 증가 | 총잔액 | 차입 주체 |
| 로스웰 | 373,000 | 1,753,082 | 기관100% | 엘앤에프 | 9,546 | 105,410 | 외국인61%/기관39% |
| 엘앤에프 | 357,526 | 3,947,974 | 외국인61%/기관39% | 신라젠 | 7,819 | 1,513,457 | 외국인75%/기관25% |
| 인선이엔티 | 237,082 | 2,671,617 | 외국인97%/기관3% | 에이비엘바이오 | 5,721 | 22,999 | 외국인63%/기관37% |
| 에이비엘바이오 | 167,042 | 671,532 | 외국인63%/기관37% | 에스엠 | 5,426 | 69,109 | 외국인71%/기관29% |
| 코렌 | 162,647 | 884,286 | 기관100% | 스튜디오드래곤 | 4,353 | 137,479 | 외국인15%/기관85% |
| 신라젠 | 144,264 | 27,923,570 | 외국인75%/기관25% | 에코마케팅 | 2,394 | 12,116 | 외국인22%/기관78% |
| 티케이케미칼 | 135,800 | 4,074,251 | 외국인79%/기관21% | 오스코텍 | 2,147 | 51,588 | 외국인59%/기관41% |
| 캡시스 | 131,000 | 7,676,746 | 기관100% | 인선이엔티 | 2,018 | 22,735 | 외국인97%/기관3% |

공매도 상위 종목 KOSPI (단위: 주/백만원)

체결일 : 2019년 6월 10일

| 종목 | 수량 | 비중 | 종목 | 금액 | 비중 |
|---------|---------|--------|--------|--------|--------|
| 메리츠종금증권 | 711,739 | 36.16% | 삼성전자 | 25,602 | 6.53% |
| 삼성전자 | 573,158 | 6.52% | 한샘 | 12,456 | 39.68% |
| KEC | 508,115 | 2.78% | 현대차 | 12,172 | 18.27% |
| 미래에셋대우 | 370,995 | 26.05% | SK하이닉스 | 10,494 | 5.10% |
| 이아이디 | 327,302 | 0.39% | 기아차 | 9,062 | 15.60% |
| 한화생명 | 213,370 | 17.62% | 휠라코리아 | 8,704 | 24.61% |
| 기아차 | 211,730 | 15.60% | 셀트리온 | 7,223 | 12.27% |
| 한온시스템 | 191,838 | 28.07% | 아모레퍼시픽 | 6,455 | 23.37% |

공매도 상위 종목 KOSDAQ (단위: 주/백만원)

체결일 : 2019년 6월 10일

| 종목 | 수량 | 비중 | 종목 | 금액 | 비중 |
|---------|---------|--------|----------|-------|--------|
| 대아티아이 | 357,851 | 16.77% | 아난티 | 5,297 | 9.84% |
| 지스마트글로벌 | 347,640 | 2.41% | 엘앤에프 | 4,376 | 33.56% |
| 아난티 | 344,691 | 9.88% | 스튜디오드래곤 | 3,642 | 19.69% |
| 이트론 | 328,480 | 0.70% | 신라젠 | 2,824 | 13.88% |
| 캡시스 | 242,988 | 4.46% | 셀트리온헬스케어 | 2,819 | 17.01% |
| 키아이드 | 201,835 | 4.89% | 대아티아이 | 2,149 | 16.74% |
| 씨케이에이치 | 185,029 | 18.63% | 삼지전자 | 1,857 | 1.72% |
| 엘앤에프 | 164,480 | 33.65% | 에이치엘비 | 1,737 | 13.08% |

누적 공매도 상위 종목 (단위: 주)

| KOSPI 5거래일 누적 공매도 | | | KOSDAQ 5거래일 누적 공매도 | | |
|-------------------|-----------|--------|--------------------|-----------|--------|
| 종목 | 수량 | 비중 | 종목 | 수량 | 비중 |
| 삼성전자 | 4,778,236 | 8.19% | SFA반도체 | 1,434,240 | 3.03% |
| 메리츠종금증권 | 3,161,499 | 26.56% | 키아이드 | 865,217 | 3.83% |
| LG디스플레이 | 1,817,904 | 20.55% | 대아티아이 | 623,340 | 11.95% |
| 미래에셋대우 | 1,607,363 | 20.98% | 지스마트글로벌 | 621,282 | 0.83% |
| 한화생명 | 1,505,706 | 21.01% | 코미팜 | 620,198 | 6.64% |
| 삼성중공업 | 1,328,675 | 13.87% | 삼표시멘트 | 593,591 | 5.23% |
| 기아차 | 934,528 | 12.27% | 씨케이에이치 | 586,445 | 5.66% |
| 마니커 | 916,061 | 1.07% | 라이브플렉스 | 535,356 | 4.17% |

KOSPI (6월 11일)

| (억원, 체결기준) | 기관 | 외국인 | 개인 | 기타 | 금융투자 | 보험 | 투신 | 사모 | 은행 | 기타금융 | 연기금 | 기타법인 |
|------------|----------|----------|----------|-------|---------|-------|---------|-------|------|-------|---------|-------|
| 매 도 | 8,815.3 | 11,152.8 | 20,816.5 | 301.6 | 2,565.5 | 910.9 | 1,132.0 | 699.5 | 39.9 | 135.0 | 3,332.6 | 301.6 |
| 매 수 | 10,848.0 | 11,838.8 | 18,153.5 | 239.0 | 3,191.8 | 902.1 | 1,201.8 | 667.7 | 57.4 | 45.6 | 4,781.7 | 239.0 |
| 순매수 | 2,032.7 | 686.0 | -2,663.0 | -62.6 | 626.2 | -8.8 | 69.8 | -31.8 | 17.5 | -89.3 | 1,449.2 | -62.6 |

매도/매수 상위종목 (억원, 금액기준)

| 국내기관 | | | | 외국인 | | | | | | | |
|------------------|-------|-------------------|-------|---------|-------|---------|-------|-----|--|--|--|
| 순매도 | | 순매수 | | 순매도 | | | | 순매수 | | | |
| 한샘 | 114.4 | LG전자 | 401.2 | SK하이닉스 | 164.1 | 삼성전자 | 315.8 | | | | |
| KODEX 200선물인버스2X | 61.5 | SK하이닉스 | 202.7 | KB금융 | 133.4 | 셀트리온 | 240.5 | | | | |
| 롯데케미칼 | 60.5 | 삼성전자 | 189.9 | SK텔레콤 | 94.8 | LG전자 | 199.6 | | | | |
| 강원랜드 | 52.1 | KODEX 레버리지 | 187.7 | NAVER | 81.9 | 삼성SDI | 114.4 | | | | |
| SK | 50.5 | 삼성에스디에스 | 165.3 | 기아차 | 73.2 | 삼성엔지니어링 | 85.3 | | | | |
| 하나투어 | 46.0 | LG | 143.7 | 삼성물산 | 70.9 | 한샘 | 84.8 | | | | |
| 두산인프라코어 | 41.9 |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 130.4 | LG | 65.3 | 롯데케미칼 | 66.2 | | | | |
| 태영건설 | 40.1 | 삼성SDI | 94.2 | 하나금융지주 | 55.4 | 삼성전기 | 57.0 | | | | |
| 신세계인터넷내셔널 | 39.2 | SK텔레콤 | 76.3 | SK이노베이션 | 54.2 | 태영건설 | 49.7 | | | | |
| 삼성엔지니어링 | 34.3 | POSCO | 67.5 | 삼성에스디에스 | 49.4 | 한국전력 | 48.8 | | | | |

KOSDAQ (6월 11일)

| (억원, 체결기준) | 기관 | 외국인 | 개인 | 기타 | 금융투자 | 보험 | 투신 | 사모 | 은행 | 기타금융 | 연기금 | 기타법인 |
|------------|---------|---------|----------|--------|-------|-------|-------|-------|------|-------|-------|--------|
| 매 도 | 1,893.5 | 3,627.3 | 35,526.2 | 349.7 | 427.4 | 157.1 | 465.0 | 457.3 | 23.5 | 42.1 | 321.2 | 349.7 |
| 매 수 | 2,156.5 | 3,634.3 | 35,377.6 | 222.0 | 745.0 | 120.9 | 433.7 | 390.3 | 17.6 | 13.3 | 435.8 | 222.0 |
| 순매수 | 263.0 | 7.0 | -148.5 | -127.7 | 317.6 | -36.2 | -31.4 | -67.0 | -5.9 | -28.8 | 114.6 | -127.7 |

매도/매수 상위종목 (억원, 금액기준)

| 국내기관 | | | | 외국인 | | | | | | | |
|---------|------|-----------|------|----------|------|---------|------|-----|--|--|--|
| 순매도 | | 순매수 | | 순매도 | | | | 순매수 | | | |
| 케이엠더블유 | 44.0 | 테스 | 41.6 | 에이치엘비 | 54.3 | 신라젠 | 47.5 | | | | |
| 다산네트웍스 | 38.7 | 셀트리온헬스케어 | 37.9 | 카페24 | 51.0 | 비에이치 | 29.0 | | | | |
| 에코프로비엠 | 27.7 | 에이치엘비 | 36.6 | 케이엠더블유 | 47.1 | 에이비엘바이오 | 26.4 | | | | |
| 스튜디오드래곤 | 27.1 | 헬릭스미스 | 36.4 | 다산네트웍스 | 40.7 | 클리오 | 21.5 | | | | |
| 엘비세미콘 | 24.3 | 신라젠 | 30.7 | 오이솔루션 | 30.3 | 씨젠 | 19.1 | | | | |
| 에이스테크 | 23.9 | 에스에프에이 | 24.8 | 헬릭스미스 | 28.2 | 안랩 | 18.4 | | | | |
| 에코마케팅 | 23.0 | 와이지엔터테인먼트 | 20.5 | 아난티 | 24.0 | 파워로직스 | 16.9 | | | | |
| 쏠리드 | 15.9 | 메디톡스 | 18.9 | 메지온 | 22.5 | 아프리카TV | 16.6 | | | | |
| 알테오젠 | 15.8 | 원익IPS | 17.7 | 셀트리온헬스케어 | 19.9 | 인선이엔티 | 15.7 | | | | |
| CJ ENM | 14.1 | 에스에이엠티 | 17.6 | 메디톡스 | 19.4 | 에코프로비엠 | 15.4 | | | | |

* 주: 정규장 종료 이후(16시) 기준

| | 2018년말 | 6/4 (화) | 6/5 (수) | 6/7 (금) | 6/10 (월) | 6/11 (화) |
|--------------------|--------------------------|------------------|--|--|--|--|
| KOSPI지수 추이 (등락) | 2,041.04 | 2,066.97(-0.88) | 2,069.11(+2.14) | 2,072.33(+3.22) | 2,099.49(+27.16) | 2,111.81(+12.32) |
| 거래량 (만주) | 35,268 | 43,599 | 38,016 | 36,839 | 45,764 | 54,218 |
| 거래대금 (억원) | 41,207 | 48,418 | 45,062 | 43,474 | 42,140 | 40,977 |
| 상장시가총액 (조원) | 1,344 | 1,376 | 1,378 | 1,380 | 1,398 | - |
| KOSPI200 P/E** (배) | 8.53 | 10.53 | 10.54 | 10.55 | 10.70 | - |
| 등락종목수 | 상승 하락 | 529(0) 294(0) | 515(0) 310(0) | 565(1) 260(0) | 628(1) 191(0) | 646(2) 183(0) |
| 주가이동평균 | 5일 20일 60일 120일 | | 2,047.74 2,068.68 2,150.27 2,138.89 | 2,056.89 2,063.74 2,149.12 2,138.89 | 2,063.60 2,062.25 2,147.70 2,138.86 | 2,075.15 2,061.82 2,146.89 2,139.24 |
| 이격도 | 5일 20일 | | 100.94 99.92 | 100.59 100.26 | 100.42 100.49 | 101.17 101.83 |
| 투자심리선 | 10일 | | 50 | 50 | 60 | 70 |
| | | | | | | 80 |

| | 2018년말 | 6/4 (화) | 6/5 (수) | 6/7 (금) | 6/10 (월) | 6/11 (화) |
|------------------|--------------------------|------------------|--------------------------------------|--------------------------------------|--------------------------------------|--------------------------------------|
| KOSDAQ지수 추이(등락) | 675.65 | 702.53(+5.03) | 707.75(+5.22) | 716.53(+8.78) | 721.14(+4.61) | 728.79(+7.65) |
| 거래량 (만주) | 59,821 | 65,710 | 61,692 | 72,322 | 76,302 | 88,106 |
| 거래대금 (억원) | 30,339 | 38,572 | 40,639 | 40,163 | 40,712 | 41,197 |
| 시가총액 (조원) | 228.2 | 238.8 | 240.7 | 243.7 | 245.6 | - |
| KOSDAQ P/E** (배) | 42.94 | 50.22 | 50.61 | 51.29 | 51.67 | - |
| 등락종목수 | 상승 하락 | 753(2) 422(0) | 847(1) 353(1) | 915(2) 278(0) | 814(1) 385(0) | 886(2) 316(0) |
| 주가이동평균 | 5일 20일 60일 120일 | | 695.46 707.11 736.27 719.92 | 698.72 705.23 735.75 720.17 | 704.16 704.84 735.11 720.43 | 709.09 704.77 734.55 720.85 |
| 이격도 | 5일 20일 | | 101.02 99.35 | 101.29 100.36 | 101.76 101.66 | 101.70 102.32 |
| 투자심리선 | 10일 | | 50 | 50 | 60 | 70 |
| | | | | | | 80 |

* 직전거래일 데이터는 정규장 종료 이후(16시) 기준

** P/E 배수는 최근 반기실적 빙영치로 수정

| 증시자금 추이 | 2018년말 | 6/4 (화) | 6/5 (수) | 6/7 (금) | 6/10 (월) | 6/11 (화) |
|--------------------|---------|---------|---------|---------|----------|----------|
| 고객예탁금 (억원) | 249,400 | 238,152 | 235,535 | 234,274 | 242,749 | - |
| 실질고객예탁금 증감*** (억원) | -3,429 | -20,044 | -2,617 | -1,261 | +8,475 | - |
| 신용잔고** (억원) | 94,076 | 101,636 | 101,510 | 101,635 | 101,944 | - |
| 미 수 금 (억원) | 1,723 | 1,121 | 1,153 | 1,107 | 1,127 | - |

신한금융투자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19년 6월 7일 기준)

| | | | | | | | |
|---------|--------|------------------|-------|---------|-------|---------|----|
| 매수 (매수) | 96.70% | Trading BUY (중립) | 0.94% | 중립 (중립) | 2.36% | 축소 (매도) | 0% |
|---------|--------|------------------|-------|---------|-------|---------|----|



서울지역

| | | | | | | | | | |
|------|---------------|--------|---------------|-----|---------------|------|---------------|-------|---------------|
| 강남 | 02) 538-0707 | 노원역 | 02) 937-0707 | 마포 | 02) 718-0900 | 삼풍 | 02) 3477-4567 | 연희동 | 02) 3142-6363 |
| 강남중앙 | 02) 6354-5300 | 논현 | 02) 518-2222 | 명동 | 02) 752-6655 | 송파 | 02) 449-0808 | 영업부 | 02) 3772-1200 |
| 광교 | 02) 739-7155 | 답십리 | 02) 2217-2114 | 목동 | 02) 2653-0844 | 스타시티 | 02) 2201-8315 | 잠실신천역 | 02) 423-6868 |
| 광화문 | 02) 732-0770 | 대치센트레빌 | 02) 554-2878 | 반포 | 02) 533-1851 | 신당 | 02) 2254-4090 | 중부 | 02) 2270-6500 |
| 구로 | 02) 857-8600 | 도곡 | 02) 2057-0707 | 보라매 | 02) 820-2000 | 압구정 | 02) 511-0005 | | |
| 남대문 | 02) 757-0707 | 마곡역 | 02) 887-0809 | 삼성역 | 02) 563-3770 | 여의도 | 02) 3775-4270 | | |

인천·부천지역

| | | | | | | | |
|----|---------------|----|---------------|-----|---------------|----|----------------|
| 계양 | 032) 553-2772 | 수원 | 031) 246-0606 | 의정부 | 031) 848-9100 | 판교 | 031) 8016-0266 |
| 분당 | 031) 712-0109 | 안산 | 031) 485-4481 | 일산 | 031) 907-3100 | 평택 | 031) 657-9010 |
| 산본 | 031) 392-1141 | 인천 | 032) 819-0110 | 정자동 | 031) 715-8600 | 평촌 | 031) 381-8686 |

부산·경남지역

| | | | | | | | |
|----|---------------|----|---------------|----|---------------|-----|---------------|
| 금정 | 051) 516-8222 | 동래 | 051) 505-6400 | 서면 | 051) 818-0100 | 울산남 | 052) 257-0777 |
| 김해 | 055) 327-7707 | 마산 | 055) 297-2277 | 울산 | 052) 273-8700 | 청원 | 055) 285-5500 |

대구·경북지역

| | | | | | | | | |
|----|---------------|----------|---------------|----|---------------|--|-----|---------------|
| 구미 | 054) 451-0707 | 대구워브더제니스 | 053) 793-8282 | 포항 | 054) 252-0370 | | 서귀포 | 064) 732-3377 |
| 대구 | 053) 423-7700 | 월배 | 053) 642-0606 | | | | 제주 | 064) 743-9011 |

1

| | | | | | | |
|----|---------------|----|---------------|----|---------------|--|
| 광주 | 062) 232-0707 | 광양 | 061) 791-8020 | 전주 | 063) 286-9911 | |
| 군산 | 063) 442-9171 | 여수 | 061) 682-5262 | 수원 | 062) 956-0707 | |

PWM Lounge

| | | | | | | | | | |
|----------|---------------|------|---------------|-------|---------------|------|---------------|-----|----------------|
| 경희궁 | 02) 2196-4655 | 마포중앙 | 02) 718-5029 | 순천연향동 | 061) 727-6703 | 의정부 | 031) 848-0125 | 충북 | 043) 232-1088 |
| 과천 | 02) 3679-1410 | 명동 | 02) 3783-1257 | 스타시티 | 02) 466-4227 | 일신중앙 | 031) 960-3786 | 판교 | 031) 8016-8677 |
| 광교영업부 | 02) 777-1559 | 문정역 | 02) 449-0808 | 신제주 | 064) 743-0754 | 전북 | 063) 286-9911 | 평촌 | 031) 386-0583 |
| 노원 | 02) 937-6782 | 부산서면 | 051) 243-3070 | 안산 | 031) 485-4481 | 종로 | 02) 722-4650 | 평택 | 031) 657-0136 |
| 대구 | 053) 944-0120 | 산본중앙 | 031) 396-5094 | 울산 | 052) 261-6127 | 종로중앙 | 02) 712-7106 | 포항남 | 054) 252-0370 |
| 대구워브더제니스 | 053) 790-8557 | 서여의도 | 02) 3775-2341 | 월배 | 053) 793-6797 | 창원 | 055) 285-5500 | | |

PWM闪存

| | | | | | | | | | |
|------|---------------|------|---------------|-------|---------------|-----|---------------|-------|---------------|
| 강남 | 02) 508-2210 | 목동 | 02) 2649-0101 | 서울FC | 02) 778-9600 | 이촌동 | 02) 3785-2536 | 부산 | 051) 819-9011 |
| 강남대로 | 02) 523-7471 | 반포 | 02) 3478-2400 | 서초 | 02) 532-6181 | 인천 | 032) 464-0707 | PVG강남 | 02) 559-3399 |
| 광주 | 062) 524-8452 | 방배 | 02) 537-0885 | 스타 | 02) 2052-5511 | 일산 | 031) 906-3891 | PVG서울 | 02) 6050-8100 |
| 대구 | 053) 252-3560 | 분당 | 031) 717-0280 | 압구정 | 02) 541-5566 | 잠실 | 02) 2143-0800 | | |
| 대전 | 042) 489-7904 | 분당중앙 | 031) 718-5015 | 압구정중앙 | 02) 547-0202 | 태평로 | 02) 317-9100 | | |
| 도곡 | 02) 554-6556 | 서교 | 02) 335-6600 | 여의도 | 02) 782-8331 | 해운대 | 051) 701-2200 | | |

해외한국법인/사무소

뉴욕 (1-212) 397-4000 | 홍콩 (852) 3713-5333 | 상해 (86-21) 6888-91356 | 호치민 (84-8) 6299-8000 | 호치민 사무소 (84-8) 3824-6445
인도네시아 (62-21) 5140-1133



고객지원센터 : 1588-03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Compliance Notice

- 각 자료 하단의 고지 사항 이외에 조사분석대상기업 관련 당사와 조사분석담당자가 추가로 고지할 사항이 없으며, 추가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IDEA] → [YES]



★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목]

매수: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Trading BUY: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중립: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축소: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섹터]

비중확대: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중립: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축소: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